



신고가를 경신한 프랑스와 인도

1. 제조업 PMI 상승의 이면

- 5월 글로벌 제조업 PMI는 전월대비 0.2pt 상승. 그러나 전월대비 상승 국가 수는 3개월 연속 감소세(25개국 중 16개국)
- 선진국 지수의 경우 1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신흥국의 경우 지난 12월을 정점으로 하락세가 지속되는 양상
- 신흥국의 부진은 중국의 부진을 반영. 5월 신규주문과 수출주문이 연중 최저치로 하락한 반면, 구매물가와 생산자물가는 수년만에 최고치 기록

2. 시차를 둔 소비심리 회복과 프랑스 증시

- 글로벌 제조업 PMI가 약 11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과 달리, 소비자심리지수의 경우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
- 올해 본격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한 선진국의 소비심리는 코로나19 백신보급이 가속화되면서 당분간 회복세가 지속될 전망
- 소비심리의 개선 기대감을 주가에 잘 반영하고 있는것이 최근 양호한 흐름을 보인 프랑스 증시. 대표 기업인 케링의 최근 1개월 수익률은 +11.3%, 에르메스는 +10.2%, 로레알은 +8.3%

3. 6월 신고가에 도달한 인도 증시

- 인도 증시에 대한 외국인의 매수세는 꾸준히 유입되는 양상. 과감한 재정지출과 낮은 대외의존도가 가지는 장점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최근 확인된 인도의 정부최종소비지출은 2015년 이후 최고치 기록.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이 발생하기 이전 수치(기저효과 미반영)
- 인도의 4월 CPI상승률은 오히려 19년 9월 이후 최저치 기록. 최근 많은 신흥국이 고려하고 있는 비자발적 통화긴축에 대한 부담이 낮은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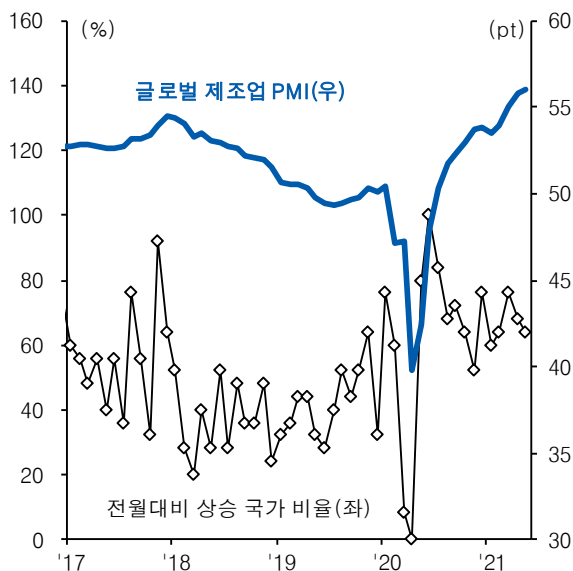
1. 제조업 PMI 상승의 이면

최근 확인된 글로벌 제조업 PMI는 전월대비 0.2pt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월을 제외하면 12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한 것이고, 지수의 레벨은 56.0pt로 2010년 4월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25개국 전반의 모멘텀은 둔화되는 양상이었는데, 5월 지표가 전월 대비 상승한 국가의 수는 16개국으로 지난 3월(19개국) 이후 감소하고 있다.

선진국과 신흥국으로 나누어보면 선진국의 우위가 지속 확인되고 있다. 선진국 지수의 경우 1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신흥국의 경우 지난 12월을 정점으로 하락세가 지속되는 양상이다. 이러한 내용은 최근 증시 흐름과도 다르지 않은데, 올해 MSCI 선진국 지수의 연초대비 수익률은 +10.6%, 신흥국은 +6.6%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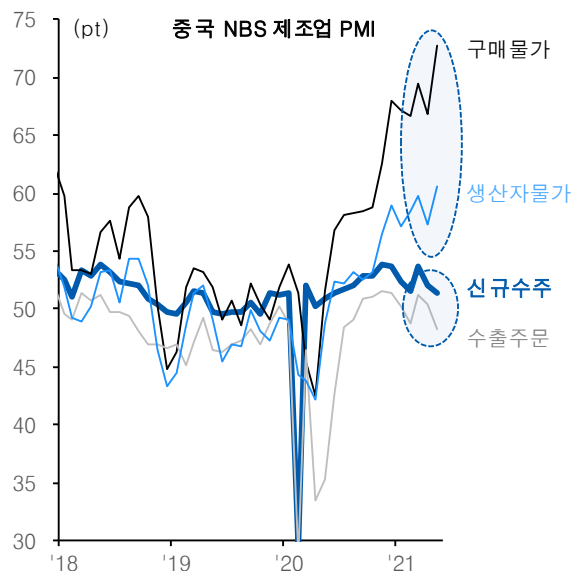
신흥국 제조업의 부진은 사실상 중국의 부진을 반영한 내용이다. 하위 데이터가 확인되는 중국의 NBS 제조업 PMI를 보면 신규주문과 신규수출주문이 연중 최저치로 하락한 반면, 구매물가와 생산자물가는 수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구매물가 2010년 11월 이후 최고치, 생산자물가 2016년 1월 통계작성 후 최고치). 헤드라인 지표는 -0.1pt 하락하는데 그쳤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좋게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차트1] 글로벌 제조업 지수는 약 12개월 간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집계. 그러나 구성국 전반의 모멘텀은 둔화 양상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2] 중국의 제조업 지수는 전월대비 소폭 하락. 신규수주와 수출주문이 하락했으나 물가지표가 급등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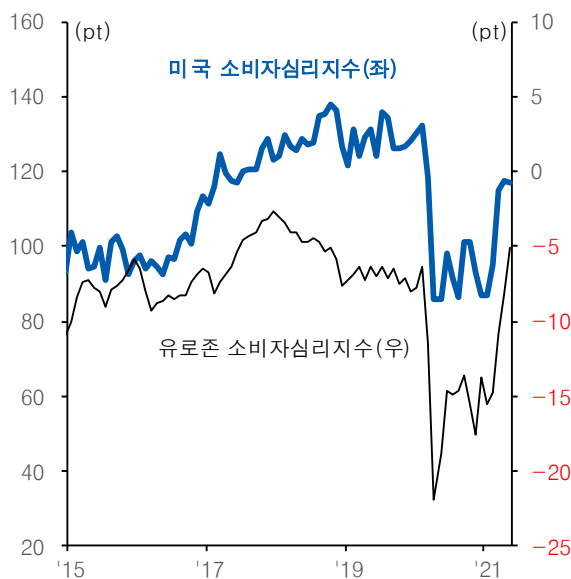
2. 시차를 둔 소비심리 회복과 프랑스 증시

최근 연준의 빠른 긴축전환 가능성에 대한 부담이 표출되면서 글로벌 증시 전반의 모멘텀도 둔화되는 양상이다. 그러나 6월에도 증시가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한 국가들이 존재하는데, 인도와 프랑스가 대표적이다.

글로벌 제조업 PMI가 약 11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과 달리, 소비자심리지수의 경우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또한 제조업과 시차를 두고 올해 본격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한 선진국의 소비심리는 코로나19 백신보급이 가속화되면서 당분간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소비국인 미국의 백신 접종 완료 비율은 41.2%, 영국은 38.7%, 독일 18.8%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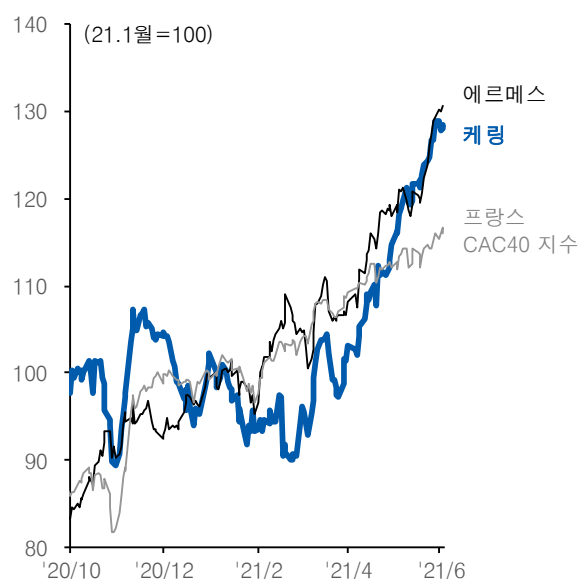
이러한 소비심리의 개선 기대감을 주가에 잘 반영하고 있는것이 최근 양호한 흐름을 보인 프랑스 증시인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는 다양한 소비재 기업들이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케링의 경우 최근 1개월 수익률이 +11.3%(4위), 에르메스는 +10.2%(5위), 로레알은 +8.3%(7위)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향후 소비심리의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프랑스 증시도 강세 기조를 유지해 나갈것으로 보인다.

[차트3] 주요국 소비심리지는 올해 연초부터 빠른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 작년 2분기가 저점인 제조업과 시차 존재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4] 6월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한 프랑스 증시는 대표 소비재 기업의 주가 상승이 견인하는 양상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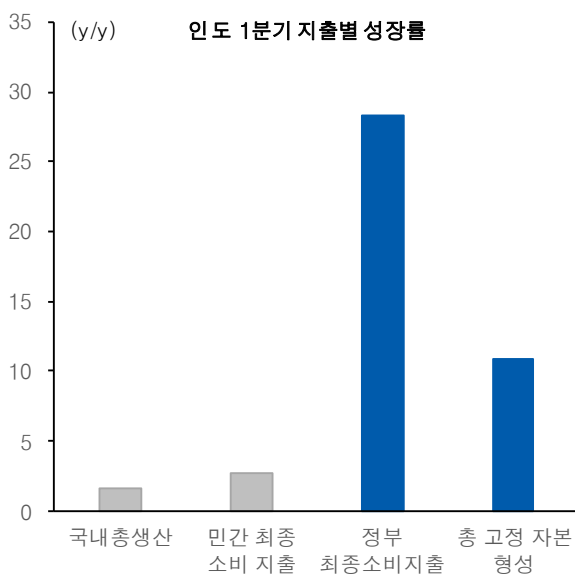
3. 6월 신고가에 도달한 인도 증시

인도 증시의 강세는 최근 언론을 통해 접하는 상황(코로나19 등)과는 차이가 있는 내용이다. 인도 증시에 대한 외국인의 매수세는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데, 과감한 재정지출과 낮은 대외의존도에서 나오는 장점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확인된 인도의 1분기 총고정자본형성은 +10.9%, 정부최종소비지출 +28.3%로 201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참고로 작년 1분기는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이 발생하기 이전(기저효과 미반영)이다.

인도는 안정된 물가흐름이 유지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다. 인도의 4월 CPI상승률은 4.8%로 오히려 19년 9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 제품군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곡물(9.7% 비중)의 물가가 하락세(전년대비 -3.0%)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주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인도는 농수산업(1차 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에 달하는 농업 강국이며, 4월 GSCI 글로벌 곡물가격 지수의 전년대비 증감률은 +57.9%에 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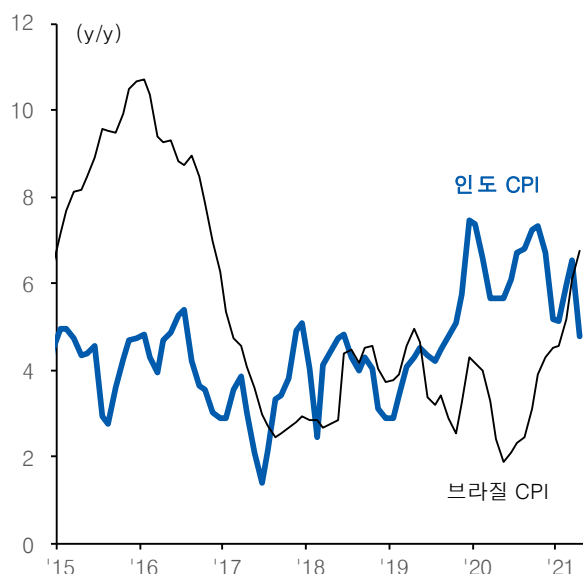
결국 인도는 최근 많은 신흥국이 고려하고 있는 비자발적 통화긴축에 대한 부담도 낮은 상황이며, 올해 이미 2번 기준금리를 인상한 브라질과 러시아와 달리 인도는 올해 연말까지 현 금리 수준을 유지(4.0%)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차트5] 역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인도의 정부는 예산안을 통해 결의한 강도높은 재정지출을 이행 중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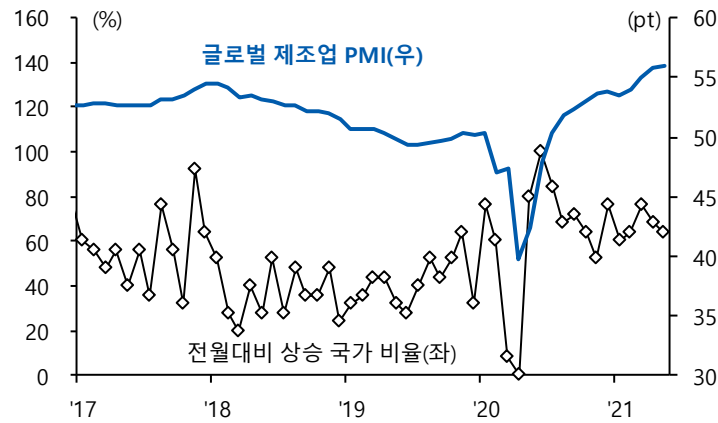
[차트6] 기타 신흥국과 달리 물가 부담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인도. 비자발적 긴축 전환 가능성도 낮은 편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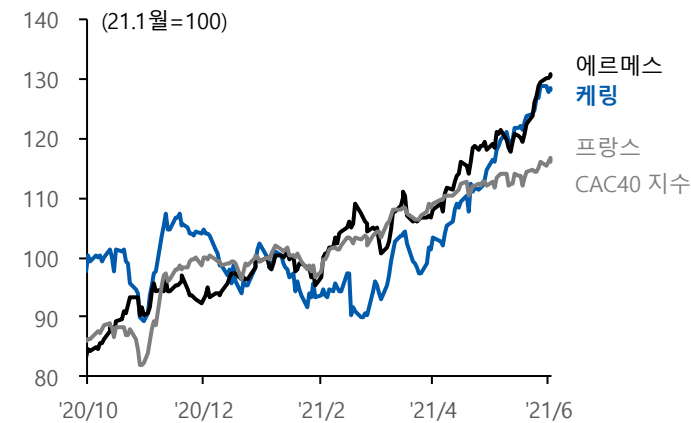
Key Chart

글로벌 제조업 지수는 약 12개월 간 상승세 지속. 그러나 구성국 전반의 모멘텀은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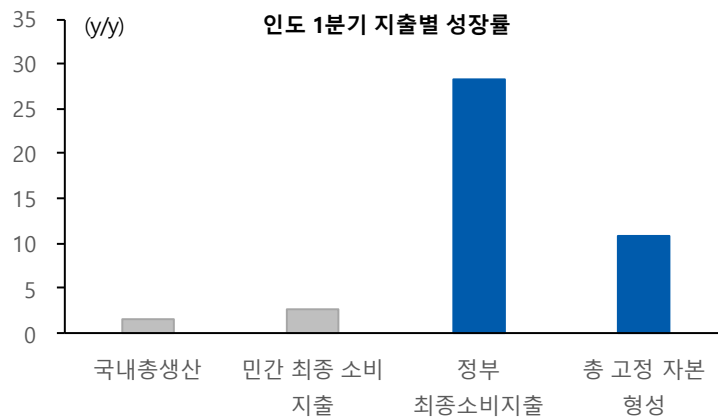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6월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한 프랑스 증시는 대표 소비재 기업의 주가 상승이 견인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인도의 정부는 예산안을 통해 결의한 강도높은 재정지출을 이행 중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